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1. 개념학습 8강 심청가 작자미상 분석서술형문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아니리](판소리에서 창을 하는 중간에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엮어 나가는 사실)

이렇듯 탄식하다 예부 상서를 또다시 부르시더니,

“네 여봐라. 오늘도 거주성명(주소+성명)을 명백히 기록하여 차차 호송허되, 만일 도화동 심 맹인 계 시거든 별궁으로 모셔 들여라.”/봉사를 차례로 점검(명부에 일일이 점을 찍어가며 사람 수를 조사하는 방법)해 내려올 적에, 제일 말석(가장 맨 끝자리)에 앉은 봉사한테 당도허며,

“여보시오. 당신 성명이 무엇이오 ”/ “예, 내 성명은 심학규요.” / “심 맹인 계신다!”

허더니만은, /“어서 별궁으로 들어갑시다.” / “아니, 어쩔라고 이리시오?”

“우에서(황후가 된 심청을 일컫음) 상을 내리실지 벌을 내리실 줄은 모르나, 심 맹인을 모셔 오라 허 셴으니 어서 별궁으로 들어 갑시다.”

“내가 공연한 잔치에 왔제. 내가 딸 팔아먹은 죄가 있는데,(자신의 개안(開眼)을 위해 인당수의 제물이 되어 빠진 심청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 잔치를 배설키는 나를 잡을 양으로 배 설을 헌 것이로구나.(심 봉사의 오해. 이후 심청-심 봉사의 재회를 더욱 극적으로 만드는 요소) 아, 내가 살아서 무엇 하리. 내 지팽이나 좀 잡으시오.”

▶ 자신을 부르는 사연을 모르는 심 봉사의 두려움과 오해

별궁에 들어가더니, / “심 맹인 대령하였소!”

심 황후 부친을 살펴보니 백수풍신 * 늙은 형용 슬픈 근심 가득한 개(죄책감을 느끼고 체념한 모습) 부친 얼굴이 은은하나, 심 봉사가 딸을 보내 놓고 삼 년 동안 어찌 울었던지 눈갓이 희어지고, 또한 피 곶이 상점이라.(심청을 보내고 괴로운 삶을 살았음을 외양 묘사를 통해 보여줌. 서술자의 개입) 산호 주렴 * 이 가리어 자세히 보이지 아니허니, 심 황후 또다시 분부허시되,

“네 여봐라. 그 봉사 거주를 묻고, 처자가 있나 물어보아라.”(심청이 자신의 아버지가 맞는지 확실히 하고자 함)

심 봉사 처자 말을 듣더니마는, 먼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니마는,

▶ 아버지의 정체를 확인하는 심청

[중모리](가장 느린 장단. 어떤 사연을 담담하게 서술하는 장면이나 서정적 장면에서 활용함)

《“예, 소맹이 아뢰리다. 예, 소맹이 아뢰리다. 소맹이 사육기는 황주 도화동이 고토(故土)이옵고, 성 명은 심학규요, 을축년 삼월 달에 산후 탈로 상처(喪妻)허고(아이를 낳고 아내가 죽음), 어미 잃은 딸자 식을 강보에다 싸서 안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동냥젖을 얻어먹어 겨우겨우 길러 낼 제,》(《》: 심 청을 힘들게 키워 온 심 봉사의 내력을 알 수 있는 부분) 효성이 출천하여 애비 눈을 띄운다고 심오 세 때 남경 장사 선인들께 삼백 석에 몸이 팔려, 인당수 제수로 죽은 지가 삼 년이오. 눈도 뜨지를 못하고 자식만 팔아먹었으니, 자식 팔아먹은 놈을 살려 주어 쓸데 있소 당장에 목숨을 끊어 주오(심 봉사의 심리 직접적 제시 - 죽기로 마음먹음).”

▶ 황후가 자신의 딸인줄 모르고 자신의 사연을 말하는 심 봉사

[아니리]

이때에 심 황후가 이 말을 다 듣고 있을 이치가 있으리오마는, 소리를 허니 일이 늦게 되었겠다.

[자진모리](매우 빠른 판소리 장단. 주로 역동적인 느낌을 주고자 할 때나 사건 전개를 빠르게 하거나 길게 나열할 때 속도감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됨)

심 황후 기가 막혀 산호 주렴을 걷어 버리고(아버지를 찾은 반가움과 기쁨) 버선발로 우루루루루루루루루(음성 상징어 사용 - 현장감, 생동감 더욱 극대화). 부친의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 심 봉사 깜짝 놀라,

“아니, 누가 날다려 아버지여? 에이? 나보고 아버지라니? 이 말이 웬 말이여! 무남독녀 외딸 하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우금 삼 년이 되었는디, 누가 날다려 아버지여?”(심청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못함)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불효 여식 심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저를 급히 보옵소서. 아이고, 아버지.” / 심 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에 아니, 심청이라니, 청이라니? 이게 웬 말이여? 에이? 이게 웬 말이여? 내가 지금 죽어 수궁을 들어왔느냐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죽고 없는 내 딸 청이, 이곳이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나?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어디, 내 딸 좀 보자! 아이고, 내가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지. 아이고, 답답허여라! 어디, 내 딸 좀 보자!”(심청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심 봉사의 반응) / 심 봉사가 두 눈을 끔쩍끔쩍허더니마는, 부처님의 도술로 눈을 번쩍 떴구나.

▶ 부녀 상봉과 심 봉사의 개안(開眼)
- 작자 미상, 「심청가」

■ 핵심 정리

갈래	판소리 사설
성격	교훈적, 비현실적, 우연적
배경	① 시간적 배경 - 송나라 말년 ② 공간적 배경 - 황주 도화동, 중국 황성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제재	심청의 효심
주제	효도를 위한 딸의 희생과 보상
특징	① 유교적 효 사상이 바탕을 이루며 여러 사상이 복합적으로 드러남. ② 골계미와 해학미가 두드러짐. ③ 음악적 요소가 두드러짐. ④ 청자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남. - 편집자적 논평 ⑤ 평민적 언어와 더불어 한자어의 사용이 나타남 - 언어의 이중성 ⑥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임

■ 전체 구성

발단	심청의 어머니가 죽은 뒤 심 봉사는 젓동냥을 하여 심청을 먹여 키움. 심청은 효성이 지극한 아이로 자라 밥 동냥을 하여 아버지를 봉양함.
전개	부처님께 공양미 삼백 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심 봉사가 이 사실을 심청에게 말함.
위기	심청은 공양미 삼백 석을 마련하기 위해 남경 상인에게 몸을 팔아 인당수의 제물이 됨.
절정	심 봉사는 행실 나쁜 뽕덕이네와 방탕하게 살고, 인당수에 빠졌던 심청은 상제의 명으로 다시 살아나 황후가 됨.
결말 (수락)	심 황후는 맹인 잔치를 열어 아버지와 만남. 눈을 뜨게 된 심 봉사는 심청과 더불어 행복하게 삶.

■ 판소리의 특징

- ① 창자, 고수, 청중으로 구성됨
- ② 노래인 '창'과 사설인 '아니리'가 적절하게 교체·반복됨
- ③ '창'은 상황과 분위기에 어울리는 장단과 어우러져 음악성을 형성함
- ④ '아니리'는 장면의 변화나 정경 묘사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음
- ⑤ 판소리에는 청자의 목소리가 직접 드러나는 경우가 많음.

■ 판소리의 구성 형식

- 창(唱): 가락, 곡조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따위의 장단에 맞춰 부른다.
- 아니리: 창을 하는 중간 중간에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엮어 나가는 사설
- 발림: 소리의 극적인 전개를 돕기 위하여 몸짓이나 손짓으로 하는 동작

■ 판소리의 장단의 종류

- 진양조: 가장 느린 장단으로, 대체로 슬프거나 비장한 장면에 사용된다.
- 중모리: 조금 느린 장단이다. 서술적인 대목이나 서정적인 대목에서 쓰인다.
- 자진모리: 비교적 빠른 장단으로 어느 것을 길게 나열하거나 극적인 긴박한 대목에 쓰인다.
- 휘모리: 판소리에서 가장 빠른 장단이다. 매우 급하거나 분주한 대목에서 쓰인다.

■ 전체 줄거리

앞 못 보는 심 봉사는 어진 곽씨 부인과의 사이에 자녀가 없어 온갖 치성을 드린 끝에 선녀 태몽을 꾸고 딸 시청을 낳는다. 그러나 불행히도 곽씨 부인이 심청을 낳고 나서 바로 숨을 거두자, 심 봉사는 젓먹이 딸을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동냥젓을 얻어 먹여 기른다. 심청이 15세가 되었을 때 심 봉사는 물에 빠진 자신을 구해 준 화주승으로부터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겠다고 약속하고는 집에 돌아와 후회한다. 효성이 지극하고 행실이 바른 처녀로 자라난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삼백 석의 대가로 중국 뱃사람들에게 제물로 팔려 간다. 인당수에 제물로 던져진 심청은 옥황상제의 명으로 커다란 연꽃 속에 실려 다시 세상으로 환생하여 황후가 되기에 이른다. 심청은 황후가 된 다음에도 아버지 걱정으로 나날을 보내다가 전국의 맹인들을 불러 모으는 잔치를 벌인다. 심 봉사는 우여곡절 끝에 맹인 잔치에 참석하여 딸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눈을 뜬다.

■ 작품 해설

이 작품에서 주인공 심청은 눈 먼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벳사람들에게 인당수의 제물로 자신을 팔아 절에 시주할 공양미 삼백 석을 마련한다. 인당수에 빠진 심청은 옥황상제와 용왕의 도움을 받아 환생하고, 황후가 된 심청을 만난 아버지 심 봉사의 눈도 뜨게 된다. 이렇듯 유교의 근본 사상인 효(孝)를 주제로 한 이 작품은 주제를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불교와 도가 사상과 연관을 맺으면서 전개된다. 따라서, 이 작품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민중들의 생활에 동화된 유교·불교·도교의 사상을 융합하여 반영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위에 제시된 본문은 심청이 인당수 제물로 떠난 후, 심 봉사가 황성의 맹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길을 떠날 때까지의 내용인데, 뽕덕이네가 등장하면서 희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판소리 및 판소리계 소설의 소설사적 위치

판소리계 소설은 대체로 판소리 사설이 독서물로 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판소리는 공연 예술로서 당대의 역사 속에서 성장하였다. 그런데 판소리가 기반으로 한 역사적 현실은 당시 역사적 주제로 성장하고 있던 평민들의 생활이었다. 판소리는 점차 양반들까지도 청중으로 끌어들이게 되면서 상층 문화적 요소들도 갖게 되지만, 평민 중심적인 기본적 세계관은 바뀌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품들을 지배하는 것은 서민층의 현실주의적 태도이다. 서민들의 삶의 고통을 해학과 신랄한 풍자로 속 시원하게 드러내고 있다. 가령, “수궁가”의 경우, 토끼의 현실주의적 행위를 통해 별주부(자라)의 봉건적 층의 사상(忠義思想)이 얼마나 허무한 망상인가와 현실 권력의 무능까지도 보여 주고 있고, “배비장 타령”에서는 양반 지배층에 대한 서민의 저항 의식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춘향전”에서 변학도에 대한 춘향의 반항이 그 한 예이다. 여기에서 조선 후기 서민 의식의 성장이 반영되어 있다.

■ 이해와 감상

‘심청가’는 작가·연대 미상의 판소리 사설로, 판소리 다섯 마당 중의 하나이다. ‘거타지 설화’, ‘인신 공희 설화’, ‘맹인 득안 설화’, ‘효녀 지은 설화’ 등의 근언 설화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에 의해 첨삭(添削)되어 적층 문학(積層文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양반들의 기호에 맞는 중국의 고사와 관련된 표현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평민들의 기호에 맞게 솔직하고 우스꽝스러운 대목도 많이 등장한다. 그리고 인물의 행동과 심리가 매우 현실감 있게 묘사되고, 사건의 발전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다.

이 작품은 유교의 효(孝) 사상을 주제로 하고, 이 효가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에 의해 달성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심청이 앞 못 보는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효의 절실한 표현이지만, 이로 인해 황후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버지가 눈을 뜨게 되는 일련의 일들은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제시된 부분은 ‘심청가’ 중에서도 가장 희극적인 대목으로 기쁘거나 우스꽝스러운 대목에서는 장단이 빨라지고, 슬프거나 처량한 대목에서는 장단이 느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심봉사는 딸을 죽음으로 내몰고, 돈으로 인해 공연히 마음이 헤퍼지는 범속하기 짝이 없는 인물로 전략하고 만다. 한편, 뽕덕이네는 인간의 본능에 충실하게 삶을 즐기자는 인물로 당대 사회에서 하나의 유형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심청가’에 등장하는 인간형

심청이 인당수에 제물로 희생된 대가로 심 봉사는 생활이 넉넉해졌으나, 이를 노리고 들어온 뽕덕이네에게 현혹되어 놀아난다. 한편 뽕덕이네는 심 봉사를 배반하고 황 봉사와 눈이 맞아 도망간다. 여기에서 심 봉사는 몰락 양반의 윤리관이 지닌 허위의식을 잘 보여 주는 인물로 평가되며, 뽕덕이네는 중세

적 신분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빚어진 윤리관의 붕괴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특히, 뽕덕이네는 물질 중심적·향락 중심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로서, 유교적 도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부정적 인물로 평가된다.

조선 후기 소설에서 이러한 부정적 인물형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대의 시대 환경 때문이다. 조선 후기에는 양반 계급의 몰락과 평민들의 부의 축적으로 신분 질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물질 중심적, 현실 중심적 가치관과 이념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심 봉사와 뽕덕이네는 이러한 시대상이 만들어 낸 희화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